

개심술 환자의 대동맥내 풍선펌프 (IABP) 사용의 임상경험

세종병원, 흉부외과

홍민수·김욱성·심재천·이해영·박철현·나찬영·김웅한·
정철현·정윤섭·한재진·나명훈·박국양·이영탁·박영관·홍승륙

대동맥내 풍선펌프는 심장수술 전후에 있어서 기계적 심실 보조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중 설치와 제거가 쉬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1994년 3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 까지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연령이 10세 이상인 환자) 499명(남자 224명, 여자 275명)중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시행받은 31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중 여자 2명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외시켰다.

성별 분포는 남자 14명, 여자 1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7세(11세부터 72세까지 분포)이었다. 이들이 받은 수술종류에 따라 구분해보면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 환자 9명,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 12명, 심장이식 환자 5명, 복잡심장기형 수술 환자 1명, 벤탈 수술환자 1명, 좌심방내 혈전제거 수술 환자 1명이었다. 합병증은 총 장골동맥 파열 1례, 혈전증 1례, 우심방내 대동맥내 풍선펌프 거치 1례로 총 3명(10%)이었다.

대동맥내 풍선 펌프 거치 시기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술전 5명, 술중 11명, 술후 13명 이었고 각군의 사망율은 60%, 27%, 38%이고, 전체 사망율은 38%이었다. 술전 시술군에 있어 사망율이 60%로 높게 나타난 것은 술중, 술후 환자군보다 상태가 훨씬 안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동맥내 풍선 펌프는 개심술을 전후한 저심박출 상태에서 효과적인 기계적 심실보조장치이며, 필요한 경우 시기적으로 빠른 시술을 했을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